



세코닉스,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 성금 전달

3월 18일(수) 세코닉스가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한 성금을 동두천시청에 전달했다.

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WHO가 '팬데믹(세계적 대유행)'을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곳곳에서 조기 극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고 있다. 세코닉스 임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지역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을 모금해 동두천시청에 전달했다.

성금을 전달한 박원희 회장은 "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많이 입었지만 다행히 동두천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. 시청 관계자 및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"며 "세코닉스 임직원의 마음들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."고 의견을 전달했다.